

C_M_002 고내본향

1 개요

고내본향 본풀이는 애월읍 고내리의 본향당과 관련하여 전승되는 신화이다.

탐라 시절 천자국에서 제주를 욕심내어 차지할 요량으로 김통정을 보내었으나 김통정이 욕심이 생겨 돌아가지 않자 삼장수를 보내어 김통정을 처단하였는데, 이때 삼장수는 임무를 마치고도 벨궁주따님아기에게 반하여 고내리에 머물러 당신이 되었다.

2 내용

옛날 탐라 때 제주도가 축산과 생산이 좋다고 하니 대국 천자국에서 김통정을 제주로 보내어 사정을 알아보게 하였다. 김통정은 모든 생산이 탐나 항파두리에 토성을 쌓아 쇠문을 달고, 성 위에 재를 깔고 말꼬리에 빗자루를 달아 말을 몰아 재를 날려 온 섬을 감추어 숨어버렸다.

김통정이 돌아오지 않자 천자국에서는 다시 황서, 을서, 병서 삼장수를 보내어 붙잡아 오게 하였다. 삼장수가 김통정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때 어떤 계집아이가 삼장수를 비웃으면서 무쇠문을 불로 달구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삼장수는 계집아이의 말대로 무쇠문을 불로 달구니 문이 녹기 시작하였다.

김통정은 할 수 없이 임신중인 아내를 죽여두고, 무쇠방석을 수평선 근처 관탈 섬을 향하여 던지니 방석이 물에 뜨므로 그 위에 올라앉았다. 황서는 새로 변신하여 김통정의 머리 위에 앉아 괴롭히고, 을서는 새우로 변신하여 김통정의 자리를 괴롭히니, 김통정의 목이 흔들리면서 비늘이 들쳐졌다. 병서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은장도로 목을 베어 죽였다. 삼장수는 김통정의 목을 상관에 바쳤다.

한편, 용왕국 벨궁주따님아기는 부모에 불효한 죄로 귀양을 당하여 고내봉 팽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삼장수는 벨궁주따님아기의 고운 얼굴에 반하여 고내리로 찾아와 고내리 토지관, 곧 본향신이 되었다.

힘센 세칫하르방이 낚시를 갔다 오다가 본향당에서 굿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을 토지관이 자손을 괴롭힌다고 하고 자신을 먼저 모시라고 야단쳤다. 이리하여 세칫하르방도 따로 모시기 시작하였다.

③ 특징

애월읍 납읍리 진유아 여무가 구연한 자료이다. 역사 속 인물인 김통정이 등장하고 있다. 김통정이 항파두리에 토성을 쌓아 무쇠문을 달고 재를 흘날려서 방비를 하여 진압하기 어려웠는데 아기 업저지가 하는 말에 따라 불로 문을 달구어 성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김통정이 주술로 관탈로 도망하자 역시 주술로 쫓아가 목을 베었다는 이야기는 전설로 널리 전한다.

이 본풀이에서는 김통정과 삼장수를 모두 천자국 장수로 설정하였다. 이 삼장수의 본모습은 <광정당본풀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래 토착적인 신격이었는데 김통정과 결부되면서 외래적인 신격으로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삼장수를 달리 설정하다보니 요왕국말잣딸아기에 대응하는 벨궁주따님아기와 인연 맺는 과정이 순탄하게 처리되지 못하였다.

한편 셋짓하르방 내력을 덧붙이기는 하였으나 이조차 순탄치 못하다. 셋짓하르방은 이동네 힘센 영감이었는데, 굿을 할 때 심방이 당신을 청하느라고 힘쓰는 데도 불구하고 신이 쉽게 응하지 않아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고 신에게 야단을 치는 배포를 보여, 그 자신도 당신으로 대접받기 시작하였다고 전하는 인물이다.

④ 핵심어

대국, 천자국, 김통정, 황서, 을서, 병서, 삼장수, 항파두리, 토성, 무쇠문, 계집아이, 벨궁주따님아기, 관탈, 무쇠방석, 셋짓하르방

⑤ 원전 서지사항

고내본향(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⑥ 관련 자료